정신문화연구 제41권 제4호(통권 153호) 7-37쪽 企劃論文

방관과 친일 사이

윤치호의 3·1 운동 인식과 대응

노상균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한국근대사 전공
dlfflcjs@naver.com

Ⅰ. 머리말
Ⅱ. 한말 일제 초 윤치호의 현실인식과 일본관
Ⅲ. 윤치호의 3·1 운동 경험
Ⅳ. 윤치호의 3·1 운동 인식과 대응
Ⅴ. 맺음말

Ⅰ. 머리말

1시 30분쯤 거리에서 군중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거리를 가득 메운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며 종로광장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소년들은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었다. 이처럼 순진한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는 미명 아래 불을 보듯 훤한 위험을 향해 자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우리는 골치 아픈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회관을 완전히 봉쇄하기로 결정했다.[1)]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소년 소녀들을 끌고가느라 바쁜 모습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면서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난 너무 무력하다 …… 니와 씨와 와다세 목사에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번 소요에 반대하고 있는지 호소했고, 일본은 조선인이 갖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

1919년 3·1 운동은 획기적이고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3·1 운동은 일부 친일인사들을 제외한 전 민족적 차원에서 참여한 운동으로 민족의 독립의지와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으며, 향후 건설할 독립국가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민중을 각성시켜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세계사적으로는 비폭력투쟁을 통해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배격함으로써 약소민족들의 식민지해방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때문에 3·1 운동은 독립운동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 영향과 역사적 의의가 높게 평가되는 것에 비례하여 3·1 운동을 정치적으로 전유하려는 시도 또한 일찍부터 이루어져왔다. 3·1 운동은 자신들의 정치적·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여타 세력들에 의해 각종 아전인수격 해석으로써 조형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그에 반대되는 세력들에 의해 폄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부조화되기도 하였다.[3)] 이처럼 조형화되고 부조화된 3·1 운동의 역사상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연구성과들이 제출·축적되었으나,[4)] 시대적 한계와

---

1) 『윤치호일기』, 1919년 3월 1일.

2) 『윤치호일기』, 1919년 3월 5일.

3) 일제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3·1 운동의 평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각 정치세력들의 3·1 운동 전유 시도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로는 지수걸,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날의 교훈」, 한국역사연구회·역사연구소 편, 『3·1 민족해방운동 연구』(청년사, 1989)를 참고.

4)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동아일보사 편, 『3·1 운동 50주년 기념논집』(동아일보사,

연구 관점의 정형화 등으로 인해 그 역사상의 복원은 여전히 충분치 못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해석 및 의의 발굴 또한 정체된 상태이다. 3·1 운동에 대한 엄밀한 고증과 다양한 시각 및 방법을 통한 재조명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글에서는 『윤치호일기』를 중심으로 윤치호가 바라본 3·1 운동과 그에 대한 평가 및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윤치호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소재라 할 수 있다. 윤치호는 3·1 운동이 일어나자 바로 다음날 『오사카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독립불가능론'을 설파하며 3·1 운동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윤치호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3·1 운동에 대해 그는 분명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3·1 운동을 '골치아픈 문제'로 폄하하면서도 한편으로 3·1 운동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일제의 가혹한 탄압, 고문, 학살행위를 비판하였다. 나아가 3·1 운동을 근거로 일제의 식민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면서 조선인들의 불만사항과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방안을 정리하여 당국자들에게 제시,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거부, 연민, 전유. 언뜻보기엔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3·1 운동에 대한 윤치호의 다양한 반응들은 어떠한 의식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윤치호에게 3·1 운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윤치호가 3·1 운동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선역사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과 현실주의적인 태도[5], 사회진화론에 바탕한 국제정세관[6], 105인 사건 때의 경험[7], 민중멸시관[8],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고방식[9]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 필자 역시 일정부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기왕의 연구들에서는 윤치

1969);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 민족해방운동 연구』(청년사, 1989); 동아일보사 편, 『3·1 운동과 민족통일』(동아일보사, 1989); 동북아역사재단 편, 『3·1 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동북아역사재단, 2010)을 들 수 있다.

5) 유영렬, 『개화기의 윤치호 연구』(경인문화사, 2011), 제2편 3장.

6) 김상태, 「일제하 윤치호의 내면세계 연구」, 『역사학보』 165호(2000), 115-116쪽.

7) 윤경로, 『개정증보판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한성대학교출판부, 2012), 431-436쪽.

8) 양현혜, 『개정판 윤치호와 김교신』(한울아카데미, 2009), 85-90쪽.

9) 박지향, 『윤치호의 협력일기』(이숲, 2010), 97-99쪽; 류충희, 「1910년대 윤치호의 식민지 조선 인식과 자조론의 정치적 상상력」, 『동방학지』 175호(2016).

호의 3·1 운동 반응 가운데 주로 '거부'의 측면만을 주목하고 '연민', '전유' 등 윤치호의 다른 반응들은 간과함으로써 그의 인식 및 행동의 전모와 복합적인 성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 상당수의 연구들이 3·1 운동 전후 국면 속에서의 행적만을 다룸으로써 윤치호가 3·1 운동에 대한 인식틀과 거부논리를 형성해나가는 계기 및 과정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필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유의점 및 목표를 두고자 한다. 첫째, 윤치호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상전개의 연속성 위에서 그의 3·1 운동 인식 및 평가,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윤치호에게 있어 3·1 운동을 인식하고 거부하는 틀은 3·1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그의 경험과 사상에서 이미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윤치호를 다루는 것이 아닌 윤치호라는 개인의 경험과 관점에서 3·1 운동을 조명하고 그 내용과 인식논리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문제의식에 바르게 조응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독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윤치호의 이해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윤치호의 3·1 운동 비판논리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독립도 민주주의도 모르는 대중들을 선동하였다는 주장이다.[10] 주지하다시피 독립과 민주주의는 3·1 운동의 참여자들이 추구한 대표적인 가치라 할 수 있는바 윤치호와 그들의 '독립'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3·1 운동을 거부하는 윤치호의 논리와 근거를 해명하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 등을 내세우면서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와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의 역사적 전개를 단편적이나마 확인하는 작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윤치호가 3·1 운동을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3·1 운동을 기획 및 전개하는데 있어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컸는데, 가령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였으며 윤치호가 이끄는 감리교 출신만 7명이었다. 실제로 3·1 운동을 전후로 해서 교회 내에서 윤치호에게

10) 『윤치호일기』, 1919년 4월 11일.

3·1 운동에 대한 참여를 종용하거나 참여치 않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1 운동을 끝까지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3·1 운동과 종교의 관계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윤치호 개인의 차원에서 그것이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이해의 실마리나마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한말 일제 초 윤치호의 현실인식과 일본관

1. 선망과 증오의 착종: 동양문명국 일본과 이중의 무정부상태

독립협회운동의 실패 이후 5년 여간 지방관직을 전전하며 좌천생활을 하던 윤치호는 1904년 3월 12일 외부협판에 임명됨으로써 다시금 중앙정계로 복귀하게 되었다. 1904년 3월은 러일전쟁이 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전쟁에 앞서 대한제국 정부는 각국에 전시국외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개전결정과 동시에 군대를 파견하여 서울을 점령한 후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한일의정서의 체결은 일본이 정치적·군사적·외교적으로 대한제국을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야에서는 국권 침탈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제국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재야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정치경장'을 주장하는 각종 개혁상소들이 제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11]

이러한 상황에서 정계에 막 복귀한 윤치호 또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고종과 정부대신들은 부패하였으며, 질서와 독립을 유지할만한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였다. 윤치호는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명화(경제적 개발)가 이루어져야 한다

11) 최기영, 「러일전쟁 발발 직후 지식인의 정치개혁론」,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일조각, 2003), 38쪽.

고 보았는데, 이때 그가 생각하는 문명화의 방법이란 국민을 계몽하고 계몽된 국민이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자유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12]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법과 제도로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했지만 고종과 정부는 오히려 인민의 재산을 앞장서 수탈하고 있었다. 정부와 대신들을 '대머리 독수리'로, 대한제국을 그들이 노리는 '썩은 동물시체'로 표현할 정도였다.[13] 더하여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구 또한 개혁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소였다.[14]

그렇기에 그는 대한제국 정부를 말끔히 일소할 절대권력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해보기도 하였다.[15]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내에서 윤치호의 입지는 높지 않았고 오히려 불안정했다. 정부와 대립했었던 독립협회의 회장이라는 그의 과거 경력 때문이었다. 외부협판에 임명되기 불과 반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고종이 싫어할만한 정치적·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저명인사들 사이에서 기피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다.[16] 정계에 복귀한 이후에도 여전히 운신의 폭은 넓지 않았다. 실제로 어윤적과 함께 국민교육회 회합에 참여하였다가 누군가로부터 독립협회의 전 회장 및 부회장이 새로운 회를 설립하고자 회동하였으니 의심스럽다는 무고를 받아 단순히 구경 갔을 뿐이라는 해명을 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비록 바로 반려되기는 하였지만 외부협판직을 사임청원할 정도로 독립협회의 경력은 그에게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17]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정부 개혁을 이끄는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일반 민중에게서 희망을 찾지도 못하였다. 그는 독립협회운동의 실패원인 가운데 하나로 민중의 개화의식 결여를 지적할 만큼 민중의 역량에 회의적이었다.[18] 그는 백성들이 예의를 모르고 경쟁의식

12) 『윤치호일기』, 1904년 7월 11일. 이는 윤치호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수용했던 한말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개혁구상이기도 했다(노상균,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역사와 현실』 97호(2015), 357-361쪽).

13) 『윤치호일기』, 1905년 7월 4일.

14) 『윤치호일기』, 1905년 4월 26일; 1904년 10월 5일.

15) 『윤치호일기』, 1905년 4월 26일.

16) 『윤치호일기』, 1903년 6월 19일.

17) 「교육회치의」, 《대한매일신보》, 1904년 08월 27일자; 「윤어량씨」, 《대한매일신보》, 1904년 08월 27일자; 「尹氏辭疏」, 《황성신문》, 1904년 08월 30일자; 「勿辭行公」, 《황성신문》, 1904년 08월 31일자.

을 갖추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국인의 땅을 뺏은 일본인들이 그 땅을 훌륭하게 개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인들이 일어나서 배우지 않는 한 일본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19] 종국에는 "모세가 자신이 광야로 이끌고 온 노예 세대에게 독립과 훌륭한 정부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현세대의 한국인들에게 독립과 훌륭한 정부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여 국권 침탈의 위기와 정부의 수준에 대한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였다.[20]

고종에게서도, 정부 관료에게서도, 민중에게서도 어느 곳 하나 개혁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윤치호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다.[21] 그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로 간헐적인 고열을 겪기도 하였다.[22] 이러한 비관적인 현실인식 속에서 그는 차츰 대한제국 정부가 아닌 다른 문명국에 의한 개혁 가능성에 희망을 걸게 되었다. 윤치호에게 있어 다른 문명국의 지배를 통해서라도 일단 한국을 개혁한다는 발상은 이때 처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자주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외세의 지배 및 간섭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차선책으로서 문명국 지배하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곧 거문도점령사건 전후, 청일전쟁 전후, 아관파천 전후의 시기 때마다 그는 문명국지배하의 개혁을 기대하였는데, 여기에는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개혁지상주의적인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23]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전쟁 중이던 러시아와 일본 가운데 윤치호가 한국을 개혁시킬 문명국으로서 선호한 것은 일본이었다.[24] 이는 그가 가진 백인에 대한 인종적 감정에 따른 선택이었다. 그는 미국 유학시절 및 선교사들과의 교제과정에서 크고 작은 인종차별을 경험한 바 있었고, 또 약소민족의 일원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백인들의 침탈과 횡포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25] 그러한 감정은 다음의

---

18) 유영렬(2011), 앞의 책, 153-154쪽.
19) 『윤치호일기』, 1904년 7월 11일.
20) 『윤치호일기』, 1905년 11월 2일.
21) 『윤치호일기』, 1904년 5월 6일.
22) 『윤치호일기』, 1904년 5월 27일.
23) 유영렬(2011), 앞의 책, 252-262쪽.
24) 『윤치호일기』, 1904년 10월 20일.
25) 『윤치호일기』, 1903년 1월 3일. 미국유학시절 윤치호가 겪은 인종차별경험과 인종주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장규식, 「개항기 개화지식인의 서구체험과 근대인식」, 『한국근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뛰어넘을 만큼 강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차이'는 나의 존재만큼이나 현실적이다. 나는 백인에 대한 무한한 감탄과 애정까지 갖고 있고, 다소 미국화된 생각과 이상, 반일적인 본능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인이나 미국인 친구, 곧 백인 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일본인들과 공유했던 동지애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말하자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백인 친구에게 흉금을 터놓지 못하게 만든다.[26]

때문에 그는 일본과 러시아의 침탈행위를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인종주의에 입각하여 러시아를 일본보다 더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황인종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이후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그것이 한국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황인종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승리에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8]

이제 윤치호에게 일본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증오하였던 백인 문명국과 맞서서 이겨낸 동양 유일의 문명국으로서 더욱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1905년 7월 시찰원에 임명되어 40여일간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시찰을 통해 윤치호가 본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질서와 체계와 청결함과 불빛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였다. 오사카의 거리와 사람들의 활력은 매력적이었으며, 도쿄의 거리 또한 자신이 유학하던 24-2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 있었다. 그가 받은 감명은 자신에게 조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일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29]

그러나 윤치호가 가진 일본에 대한 선망 및 기대는 금새 실망 및 증오와 뒤섞이게 된다. 일본의 관심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일뿐 한국에 훌륭한 정부를 도입하고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에는

현대사연구』 28호(2004), 28-32쪽을 참고.

26) 『윤치호일기』, 1903년 1월 15일.

27) 『윤치호일기』, 1902년 5월 7일.

28) 『윤치호일기』, 1905년 6월 2일; 1905년 9월 7일.

29) 『윤치호일기』, 1905년 7월 18일; 1905년 7월 20일; 1905년 7월 24일; 1905년 8월 6일.

하등의 관심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30] 그는 일본이 한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법률을 마련하여 관리들의 억압과 착취를 막아주기를 기대하였지만, 자신들이 이권을 침탈하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히려 한국 정부의 부패를 방치·조장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분개하였다. 이제 백성들은 부패한 군주와 관리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로부터의 억압과 재산 침탈도 걱정하게 되어 러일전쟁 이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그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이중의 무정부상태' 또는 '이중의 억압상태'로 표현하며 앞으로 한국인들이 절망적인 생존경쟁을 치러야 할 것을 우려하였다.[31] 나아가 을사조약의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약속을 믿을 수 없으니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조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을사조약이 결국 체결되자 그는 다음날 바로 사직하였으며, 치욕스러운 조약에 서명한 내각의 명단을 일기에 기록하는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였다.[32]

그런데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조야의 여러 활동들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조병세의 주도하에 을사조약의 폐기를 청원하는 관료들의 상소운동에 참석할 것을 세 번이나 권유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비록 그 의도는 좋지만 일본이 20만 명의 생명과 수억 엔의 돈을 희생시키면서 획득한 것을 소리만 요란한 몇 장의 상소문으로 취소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3] 더하여 외교활동이나 자결을 통한 항의, 의병운동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일본의 침략이 확대되는 구실로 작용할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여겼다.[34]

이러한 인식하에 그는 외교고문 스티븐슨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호국으로 전락한 현실을 수긍하는 한편 대한제국 정부에 의한 독립 및 개혁 기대를 포기하고 개인적인 계몽활동에만 힘쓰기로 마음먹었음을 밝혔다.[35] 이후 그는 자신이 밝힌 바대로 각종 계몽운동에 종사하였다.

---

30) 『윤치호일기』, 1904년 4월 26일; 1904년 5월 28일.
31) 『윤치호일기』, 1905년 10월 14일; 1905년 10월 25일.
32) 『윤치호일기』, 1905년 11월 17일; 1905년 11월 18일.
33) 『윤치호일기』, 1905년 11월 27일.
34) 『윤치호일기』, 1905년 9월 9일; 1905년 11월 30일; 1905년 12월 17일; 1906년 6월 15일.

대한자강회 회장, 기호흥학회 교육부장, 청년학우회 회장 등 서울에서 조직된 주요 계몽단체의 간부로서 활동하였으며, 개성교육회, 개성상업회, 개성학회 등 자신의 집이 있는 개성지역의 계몽단체들에서도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였다.[36] 개성 한영서원과 평양 대성학교의 교장을 겸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최신유학자취(最新幼學字聚)』를 편찬하는 등 교육사업에도 힘썼다.[37] 그러는 동안 몇 차례 관직제의가 있었지만 3개월정도 중추원 찬의에 임명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거절하였다. 농상공부대신이 되어 새로운 내각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하였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38] 계몽운동기간 그는 줄곧 정치 참여에 거리를 두었으며 병합이 임박한 1910년 여름에는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세계선교대회에 참석차 아예 국내를 떠나있었다. 그는 조용히 해외에서 나라를 잃은 지식인이 되었다.

2. 생명, 재산의 보호 부재에 대한 불만과 침묵

윤치호에게 병합 이후부터 3·1 운동 이전까지의 시기는 식민지배의 억압과 차별을 피부로 실감하였던 시간들이었다. 그 시작은 105인 사건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05인 사건은 일제가 병합전후 일어난 암살 및 테러사건의 배후로 여겨지는 비밀결사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아가 반일의식이 강했던 서북지방의 기독교 세력과 그와 연결되어있는 미국 선교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다. 윤치호는 1912년 2월 5일에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 구속되었다. 그가 체포된 시점은 다른 피의자들이 대부분 1911년 9월경에 체포된 것에 비하면 9개월이 지난 후였는데, 이렇게 구속이 늦어진 것은 일제측이 105인 사건의

35) 『윤치호일기』, 1905년 12월 12일.

36) 「開城商業會」,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9일자; 「개성교육회소식」,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3일자; 「開城學會擴張」, 《황성신문》, 1908년 6월 17일자.

37) 「最新幼學字聚」,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30일자.

38) 「내각조직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03일자. 이 소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소문이 나돌기 몇 달 전 당시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부동산법조사회'를 설립하면서 조선측 위원으로 윤치호를 추천했다가 대신들의 반대로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문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金正明 編, 『日韓 外交資料集成 6: 日韓併合編 上』(巖南堂書店, 1964), 256-257쪽).

조작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사건의 주모자로 그를 지목했기 때문이었다.[39]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자백하였으니 진실을 말하라는 경찰 측의 압박과 고문에 의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곧 허위자백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그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 3년간 옥고를 치른 끝에 1915년 2월에 천황의 특사로 석방되었다.

중년의 나이를 넘긴 윤치호에게 감옥생활은 가혹한 것이었다. 몇 년 뒤 회고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햇빛 구경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운동도 하루에 3-5분정도만 가능했으며, 사람과의 접촉은 전면 금지되어 있었고, 성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책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40] 흥미로운 것은 석방 직후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일본역사를 공부하고 싶어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쓴 『개국오십년사』를 얻어서 읽어보았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그는 일본역사를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과 조선이 역사상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또 지금과 같이 서로 나뉘지 못할 관계가 있으나 소위 유식자 중에 능히 일본역사와 지리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이러한 일은 참 한심한 일이며 죄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41] 짐작컨대 그가 회고에서 『개국오십년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감옥생활의 어려움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인터뷰와는 다르게 그것이 그가 원해서 읽은 책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이때까지 그가 일기에 남긴 독서목록들 가운데 일본에 관한 책은 상해시절 읽은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본 소설 몇 권이 전부였다. 그가 읽은 책들은 주로 서양의 역사, 문학, 위인에 관한 것으로 윤치호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따로 책으로 읽을 만큼 관심을 가지진 않았다. 그러나 105인 사건을 통해 이제 그는 그동안 관심 없었던 일본의 역사도 알아서 공부하고 그 감명을 공개석상에서 말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매일신보사를 찾아가 앞으로는 일본의 유지들과 교류를

---

39) 윤경로(2012), 앞의 책, 431쪽. 윤치호는 병합이전부터 잦은 외국행으로 인하여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곤 하였다(「비밀형탐」,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2일자; 「윤씨를탐문」, 《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16일자).

40) 『윤치호일기』, 1921년 10월 19일자.

41) 「極樂에 환생한 六人: 獄中所得, 화기를 띤 尹致昊氏, 옥중에서 얻은 몇 가지」, 《매일신보》, 1915년 2월 16일자.

깊이하고 동화정책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전향선언을 하였으며, 일본의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고 일본 사람과 친밀히 지낼 것을 권고하는 연설도 하였다.[42] 친일단체 및 행사에도 물론 참여해야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총독은 그를 직접 불러 앞으로 조선인과 외국인,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이해 증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요청 아닌 요청을 한 바 있었다.[43] 이에 그는 효용성을 의심하면서도 무단통치기 유일하게 결성이 허락된 단체이자 친일단체였던 대정친목회에 평의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본의 명사들과 매달 4번째 금요일마다 열리는 정기대화모임을 조직하는 등 친일 행보의 폭을 넓혀갔다.[44]

하지만 일제의 압박은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순응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YMCA 총무로서 직원을 뽑는 일조차 경찰 측에 일일이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는 대외활동에 있어서 강한 통제를 받았다.[45] 그가 관여하던 학교나 YMCA의 교육 활동 또한 일제의 사립학교규칙개정에 따라 운영에 제약을 받았고,[46] 당국의 의심을 살 것이 두려워서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장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도 하였다.[47] 가는 곳마다 경찰의 감시를 받았으며,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이나 심지어 YMCA 소속 목사마저 밀정으로 의심해야할 정도였다.[48]

한편으로 그를 더욱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장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조선 인민의 실력양성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총독부가 그 기본이 되는 조선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도리어 조선인들은 기근에도 방치되었으며 일본인 관료들의 불공정 행위와 민족적 차별 속에 재산을 침탈당하고 있었다.[49] 여기에는 윤치호

---

42) 「本社長을 방문한 윤치호씨, 余는 大히 오해하였었노라, 余는 광명을 得하였노라」, 《매일신보》, 1915년 3월 14일자; 「尹致昊氏의 五十而覺」, 《매일신보》, 1915년 5월 20일자.

43) 『윤치호일기』, 1916년 3월 4일. 그 밖에도 경성일보 사장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로부터 이따금씩 총독을 방문하고 총독이 출장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마다 열리는 연회에도 참석할 것을 권고 받았다(『윤치호일기』, 1916년 5월 28일).

44) 『윤치호일기』, 1916년 5월 26일; 1917년 1월 19일. 대화모임의 멤버는 총독부 영문기관지 서울프레스 사장 야마가타 이소오(山縣五十雄), 일본조합교회 조선전도부 주임 와타세 츠네요시(渡瀨常吉), 조선전도부 참사 무라카미 타다요시(村上唯吉) 등이었다.

45) 『윤치호일기』, 1916년 12월 17일; 1916년 12월 26일.

46) 『윤치호일기』, 1916년 11월 14일; 1916년 12월 14일.

47) 『윤치호일기』, 1918년 7월 30일.

48) 『윤치호일기』, 1916년 2월 5일; 1918년 4월 14일; 1918년 12월 23일.

49) 『윤치호일기』, 1917년 7월 26일; 1918년 5월 13일; 1918년 12월 1일.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도 있었다. 아버지 윤웅렬의 묘소가 있는 온양의 선산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대해 일본인 광산업자가 금광채굴권을 신청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묘소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 농상국장과 경무국 관료 와타나베 다가지로(渡邊鷹次郎) 등 친분이 있는 당국자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일본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조선인의 사권(私權)은 보호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당국이 금광채굴권을 허가해 줄까 두려워하였다.[50] 더하여 실사조사를 위해 나온 광산국 관리 구라이시(倉石)와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다.

> 광산국 관리인 구라이시가 와서 우리 소유의 언덕을 측량했다. 구라이시는 상당히 거만한 태도와 어조로 내가 소유권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의 묘 주위를 파는 일은 나쁘다는 생각은 조선의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는 생명의 안전과 재산권의 안전은 황제도 존중해야 하는 근본적인 권리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하다니 자나치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기력한 분노감에 나는 "조선인에게는 묘도 산도 있는 것입니다(朝鮮人ニハカモ山モアルモノテスカ)"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떠났다.[51]

그는 생명과 재산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근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한낱 미신으로 치부하며 훈계하는 일본인 관리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한 분노감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일제의 비보호 및 차별은 윤치호가 중시하던 조선 독립을 위한 실력양성의 길을 가로막는 처사라는 점에서 그에게 있어서는 조선의 현실은 물론이요, 미래마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불만과 문제인식에도 불구하고 3·1 운동 이전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나 특별한 타개책을 모색하지는 않았다. 대외활동에 많은 감시와 제약을 받은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가 생각하는 조선 독립의 방법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곧 윤치호는 약소국이 현실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체코슬로바키아의 사례에서 찾았

50) 『윤치호일기』, 1916년 8월 24일; 1917년 12월 12일.
51) 『윤치호일기』, 1917년 12월 15일.

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은 마사리크의 외교적 노력 덕분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350년 지배 속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이 민족적·국가적 유대감을 지키고 실력을 키워왔다는 점과 1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정세의 조건이 결합되었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보았다.[52] 그런 점에서 그는 국제정세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에 호응할 민족적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에 공공연한 저항을 일삼는 것은 오히려 조선인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해외의 독립운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양기탁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양기탁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일본 당국의 불신을 지속시키는 '진정한 조선의 적'이라고 비난하였고,[53]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추진하는 외교활동에 대해서도 의미없는 행동이라 평가하였다.[54] 그는 조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본이 진보적이고 포용력 있는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55]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보다는 1차세계대전 때 영국에 협조했던 인도와 같이 오히려 일본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들의 호감을 얻음으로써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56] 이러한 견해 속에서 그는 3·1 운동 이전까지 결코 공식석상에서 일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일 없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렇게 불만과 침묵을 쌓아가는 가운데 1919년 그날이 다가왔다.

Ⅲ. 윤치호의 3·1 운동 경험

일기에 따르면 윤치호가 3·1 운동 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시기는 3·1 운동을 불과 며칠 앞둔 2월 26일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치호는 이미 그보다 앞서 향후 3·1 운동으로 이어질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조선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

52) 『윤치호일기』, 1919년 2월 27일; 1919년 12월 20일; 1920년 11월 14일.
53) 『윤치호일기』, 1918년 12월 18일.
54) 『윤치호일기』, 1918년 12월 19일.
55) 『윤치호일기』, 1918년 12월 22일.
56) 『윤치호일기』, 1919년 1월 16일.

변화의 바람은 먼저 국외에서 시작되었다. 1918년 1월 8일 미국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의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원칙으로 '14개조 선언'을 제창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윌슨의 '14개조 선언'은 전후 구축될 세계체제에서 미국의 정치적 ·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더하여 러시아 혁명 이후 동요하고 있는 식민지 민족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57] 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민족자결'의 원칙은 식민지 제민족, 특히 아시아의 식민지 민족들로 하여금 독립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문제가 논의될 파리강화회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 또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서 각자 조금씩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파리강화회의의 개최를 서구열강에 독립을 호소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동정과 지원을 기대하는 가운데 조선인 대표를 선정하여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고자 하는 국내외 단체들의 독립청원 시도와 그것을 여론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독립선언 계획이 추진되었다.[58]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는 윤치호의 주변에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윤치호가 파리로 가서 서구열강의 지도자들에게 조선의 실상과 독립의지를 선전해주기를 바랬다. 곧 1919년 1월 17일에 신흥우가 윤치호에게 파리로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1월 28일에는 최남선이 찾아와 파리로 갈 것을 설득하였다.[59] 그들이 윤치호에게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유한 정확한 동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윤치호가 가진 뛰어난 영어 실력과 국제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역량에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에게는 미국정계에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각종 기독교 세계대회에 조선대표로 참여한 경력 덕에 국제적인 명성도 가지고 있었기

57)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정세」,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문제연구소 편, 『3 · 1 민족해방운동연구』(청년사, 1989); 전상숙,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50호(2009)를 참고.

58) 박찬승, 「3 · 1 운동의 사상적 기반」,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문제연구소 편, 『3 · 1 민족해방운동 연구』(청년사, 1989), 399-410쪽.

59) 최린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최남선의 방문은 3 · 1 운동에 구시대 인물의 대표로서 윤치호를 참여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뤄진 것이었다고 한다. 최남선의 파리행 권유는 윤치호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崔麟 訊問調書(第2回)」,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11(국사편찬위원회, 1990)).

때문이다.[60]

그러나 정작 윤치호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는 파리강화회의를 통해 독립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곧 ①한일병합조약을 뒤집기 위해서는 조선의 상황이 병합이전에 비해 열악해졌음을 서구열강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②일본에게 조선을 확보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완전히 제압되지 않는 한 조선의 독립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미국이나 영국이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일본과 전쟁을 치를 가능성도 없다는 점, ③독립을 위해 투쟁하지 않고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 민족이나 국가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투쟁이 불가능한 조선으로서는 약자로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61] 요컨대 식민지 현실인식, 일본의 안보상에서 조선이 가지는 중요성, 국제정세의 동향, 제국주의와 약소민족에 관한 역사의식 등을 근거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 권유를 거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윤치호의 인식과 선택에 대해 조선의 지식인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과 불만을 표출하였다. 송진우는 그를 찾아와 국제연맹이 현실화될 것이며 국제연맹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미국의 강력한 주도하에 약소국에 자결권을 부여할 것이고 조선에게도 자결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윤치호와는 다른 자신의 국제정세관을 피력하였다.[62] 또 이상재로부터 그가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는 충고를 받기도 하였다.[63] 하지만 그는 파리강화회의에 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지금은 승산 없는 헛된 투쟁을 하기보다는 일본에 협력해서 그들의 호감을 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였다.[64]

---

60) 실제로 이러한 명성으로 인해 105인 사건 당시 윤치호의 구속과 관련하여 미국정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은근한 압력이 총독부에 작용하기도 하였다. 윤경로(2012), 앞의 책, 155-156쪽.

61) 『윤치호일기』, 1919년 1월 29일.

62) 『윤치호일기』, 1919년 1월 18일.

63) 『윤치호일기』, 1919년 2월 5일.

64) 『윤치호일기』, 1919년 1월 16일.

한편 비슷한 시기 국내에서 조선의 여론을 자극하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1919년 1월 21일, 한때 대한제국의 황제였으나 국권을 빼앗긴 이후로는 덕수궁에서 명목상의 예우만 받으며 지내던 고종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민간에서는 독살설과 자살설 등 온갖 소문이 나돌았으며 이로 인해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이 크게 고양되었다. 윤치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 평균적인 조선인은 10퍼센트의 이성과 90퍼센트의 감성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광무태황제의 승하 때문에 왁자지껄하고 있다. 유교적인 예문가로서 자부심을 지닌 많은 노인들은 역겨운 상복을 입고 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슴속에 쌓인 울분과 수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 조선인들은 광무태황제의 승하를 두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광무태황제의 통치가 어리석음과 실수로 점철된 오랜 통치였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광무태황제의 승하가 조선의 자결권이 끝내 소멸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광무태황제를 위해서는 한 방울의 눈물이, 조선인들을 위해서는 두 방울의 눈물이 흐른다.[65]

조선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전통과 비이성적인 면모에 대해서 혐오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이 독립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존재가 사라짐에 따라 새삼 느껴지는 식민지인의 울분과 수치심 등에 대해 그 또한 연민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민의 감정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었다. 왁자지껄, 야단법석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민중들의 충격과 울분에 대해 완전히 공감하지 못한 채 비이성적인 소동에 불과한 것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헛된 기대감과 고종의 죽음으로 인한 민중들의 감정고양이 소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그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소요의 조짐과 관련한 각종 소문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총독부 당국이 고종의 승하를 통해 소요가 날 것을 우려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비밀지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며,[66]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 일부가 장례행렬 도중에 소요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67] 교회내 청년들의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았다.

---

65) 『윤치호일기』, 1919년 1월 23일.
66) 『윤치호일기』, 1919년 1월 28일.
67) 『윤치호일기』, 1919년 2월 10일.

그가 보기에 청년들은 오직 정치적 독립에만 관심을 두며 약간만 자극해도 불이 붙을 것 같은 기세였다.[68] 각종 소문의 범람 속에 그는 2월 26일에서야 고종의 장례식 하루나 이틀 전에 시위가 일어날 것, 시위방법은 비폭력시위일 것, 천도교 인사들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등 3·1 운동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69]

그런데 3·1 운동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윤치호는 거기에 특별히 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그저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YMCA가 3·1 운동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만 주력하였다. 3·1 운동을 추동하는 조선내 여론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공감하지 못한 채 오로지 그것이 더욱 가혹한 통치를 가져오지 않을지를 걱정했던 윤치호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다른 지식인들과 청년들이 3·1 운동에 대한 준비가 한창일 동안 그는 3·1 운동과 관련될 만한 주변요소나 상황들을 배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곧 아이들의 가정교사를 맡으며 그의 집에서 숙식하고 있던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정화기(鄭華基)가 반일청년으로 경찰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하숙집을 구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70] 간사회의를 열어 3월 1일부터 3일까지 YMCA회관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모든 공공집회를 취소하게 하였다.[71] 3·1 운동 당일날에도 만세시위를 목격하자 곧바로 YMCA회관을 완전히 봉쇄할 것을 결정하였다. 3·1 운동에 참여했던 다른 지식인들과 민중들과는 다르게 그에게 3·1 운동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회피하고 싶은 사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Ⅳ. 윤치호의 3·1 운동 인식과 대응

1. 3·1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자치제로의 전유 시도

3·1 운동에 대한 평가를 놓고 윤치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

68) 『윤치호일기』, 1919년 2월 23일.
69) 『윤치호일기』, 1919년 2월 26일.
70) 『윤치호일기』, 1919년 2월 6일; 1919년 2월 9일.
71) 『윤치호일기』, 1919년 2월 27일.

그는 3·1 운동의 진압 및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 학살, 고문 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민을 표하면서 학생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2] 나아가 3·1 운동에 대해 조선이 아직 민족본능이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평가하였으며,[73] 또 3·1 운동이 조선인의 반일감정이 깊고 넓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지난 10년간 일본인의 정책이 조선인의 호감을 얻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고 나름 의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74]

그러나 3·1 운동에 대한 윤치호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는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1 운동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3월 2일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의 방한승(方漢昇) 기자가 찾아오자 3·1 운동에 반대하는 6가지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3월 6일에는 『경성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3·1 운동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경성일보와의 인터뷰는 당시 유일한 한글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에 「朝鮮人을 爲하여 悲劇, 尹致昊氏談」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소개되기도 하였다.[75] 흔히 대표적인 친일인사로 알려진 이완용이 3·1 운동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한 것이 4월 2일이었고, 친일관료로서 3·1 운동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반대논설을 썼던 민원식이 신문지상에 글을 게재한 시점이 3월 11일이었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윤치호의 반응은 매우 기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반대 인터뷰로 인하여 대중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냉담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내 말에 조금이라도 애매한 점이 있으면 즉시 당국자들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조선의 청년들을 잘못 인도하게 될 것이므로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고 하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였다.[76]

3·1 운동에 대한 윤치호의 반대 이유는 인터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①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문제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②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대립을 감수할 가능성이 없는 점, ③독립이 주어지더라도 독립을 통해

---

72) 『윤치호일기』, 1919년 3월 5일; 1919년 3월 10일; 1919년 3월 26일.
73) 『윤치호일기』, 1919년 2월 27일.
74) 『윤치호일기』, 1919년 3월 31일.
75) 「朝鮮人을 爲하여 悲劇, 尹致昊氏談」, 《매일신보》, 1919년 3월 8일자.
76) 『윤치호일기』 1919년 3월 6일. 윤치호는 YMCA회관 건물에 일장기를 달자고 주장할 정도로 총독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윤치호일기』, 1919년 3월 22일).

문명의 혜택을 얻을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점, ④3·1 운동이 오히려 일제의 무단통치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 ⑤단순한 만세시위만으로 독립을 얻을 수는 없다는 점, ⑥운동을 주도한 천도교세력에 대한 불신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결국 국제정세인식과 조선인들의 역량 및 주체성에 대한 불신감이 3·1 운동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는 3·1 운동을 국제정세를 잘 모르고, 또 독립도 민주주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도교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선동당하여 일으킨 것으로 평가절하 하였다.[77]

그런데 윤치호는 3·1 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식민통치를 변화시키고 조선인의 입지를 개선할 하나의 기회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우츠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 조선군 사령관, 이시즈카 에이조 동양척식회사 총재, 외무성 관료 요시자와 겐키치(吉澤謙吉) 등 일본의 요인들을 만나서 총독부로 하여금 조선인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정책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78] 이때 그는 조선인들의 불만사항으로 ①공직사회 진출 제한 및 차별, ②재산권 보호 미비와 기본권 제약, ③고충 사항을 알릴만한 기관이나 방법의 부재, ④동척의 일본인 이민정책과 토지침탈, ⑤출판과 언론의 탄압 등을 제시하였다.[79] 이후 그는 3·1 운동으로 혼란해진 조선의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부임하자 자신의 의견을 따로 「일본 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요인」이라는 보고서로 정리하여 야마가타 이소오를 통해 총독과 정무총감에게 전달함으로써 총독부의 새로운 통치방침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80]

한편 윤치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치제의 실시를 희망하였다. 자치제에 대한 요구는 3·1 운동 직후부터 송병준 등에 의하여 추진된 바 있으며 윤치호 또한 그 소문을 접한 바 있었다. 그는 자치제가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자치운동에 직접적인 참여는 자제하였지만,[81] 이후 결국 현실적으로 독립보다는 자치가

77) 『윤치호일기』, 1919년 4월 11일.
78) 『윤치호일기』, 1919년 3월 12일; 1919년 3월 22일; 1919년 4월 16일; 1919년 4월 18일; 1919년 5월 1일; 1919년 5월 7일.
79) 『윤치호일기』, 1919년 3월 12일; 1919년 4월 18일; 1919년 5월 1일.
80) 『윤치호일기』, 1919년 9월 11일.
81) 『윤치호일기』, 1919년 3월 18일.

조선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82] 이때 윤치호가 생각하는 자치제의 기본틀은 군사 · 외교 · 재정 · 무역 · 관료 · 경찰에 관한 권한을 본국 정부가 관장하고 식민지 의회는 기타업무를 담당하되 본국 정부는 식민지 의회의 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도 가지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자치제였다.[83] 이렇게 낮은 수준의 자치제를 구상한 것은 일본의 자치허용 가능성을 고려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민중의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감 때문이었다.[84]

이러한 그의 구상은 1919년 9월 20일부터 26일에 걸쳐 개최된 '13도 대표에 대한 시국강연회'에서 제출한 19개조 건의안으로 구체화된다. 시국강연회는 총독부가 문화통치의 시작과 함께 각도마다 4명씩 전국 13도에서 52명의 조선인 유력자들을 불러 모아 총독부의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을 행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였다. 그러나 조선인대표들은 총독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대회를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로 보고 야간에 따로 회합하여 조선인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정리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당시 윤치호는 조선인대표들의 의장직을 맡아 19개조 건의안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85] 19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면회, 부회, 도회의 설립을 요함
2. 각도 인민의 대표자를 회집하여 민의창달의 기관설치를 요함
3. 교육정도는 내지인과 동일히 하여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
4.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허할 것
5. 이민정책을 폐지할 것
6. 금회의 소요범인에 대해서는 기결, 미결을 불문하고 上奏特赦의 恩을 蒙케함을 요함
7. 鮮人能力을 민법총칙 제1장 2절 능력에 동등한 제도로 해 禁治産制度를 시설할 것
8. 1, 2등 도로에 대한 부역은 면제하고 3등 이하의 도로 부역은 農時를 뺏지 말 것을 요함
9. 국유산림 및 漁基, 干潟地 등 기타 대부에 대하여 청원의 선후와 연고자의

82) 『윤치호일기』, 1919년 9월 15일; 1919년 9월 16일.
83) 이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윤치호일기』, 1920년 1월 20일.
84) 『윤치호일기』, 1919년 7월 11일.
85) 『윤치호일기』, 1919년 9월 24일.

유무에 의치 말고 내선인의 차별적 대부를 철폐할 것
10. 역둔토는 소유지 선인에게 매각할 것
11. 제반법령에 관한 수속을 통일 및 간이하게 할 것
12. 토지수용령을 남용치 말고 필요할 때에는 상당한 시가를 지급할 것
13. 각 관청요직에 있는 내선인 관리원 수를 평균히 채용할 것
14. 재판소령 제35조를 개정하여 조선인법관에게도 내지인과 동등의 권리를 부여할 것
15. 내외국 중등이상의 학교졸업생에게는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줄 것
16. 각 면장은 민선의 의하여 임명할 것
17. 민적부 오류정정의 수속을 간이하게 할 것
18. 재래禁養한 실적 또는 관청의 문서 憑據가 존재하는 산림에는 地籍屈 유무 및 林材 유무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양여할 것
19. 鑛區 내에 소유주가 있는 墳墓 소유지는 지표 이하 사방 3백 間을 침범치 말 것[86]

주요 항목들을 보면 자치제 준비(1 · 2조), 재산 및 기본권 보호(4 · 10 · 12 · 18 · 19조), 조선인 관리 등용(13 · 15 · 16조), 차별 철폐 및 복지 요구(3 · 9 · 13조), 이민정책 폐지(5조) 등 그동안 윤치호가 주장하던 바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윤치호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온양 선산 광산개발 문제와 직결되는 요구사항이 제19조로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윤치호 등의 19개조 건의는 "현재 우리의 목적은 선전안과 선전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지, 마치 여러분이 의원인 것처럼 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는 대답과 함께 바로 묵살되었다.[87] 이러한 총독부의 태도로 인해 이후 일정에 조선인대표의 절반이 불참할 정도로 불만이 팽배하였고 윤치호도 몹시 실망하였지만, 친분이 있는 야마가타 이소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진 못하였다.[88] 일본에 협력하여 호감을 얻고 그를 통해 정책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당초 윤치호의 구상이었던 만큼 일본의 거부를 비판하고 압박할 만한 논리나 수단이 그에겐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자의 말처럼 그들은 진정한 조선인의 대표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3 · 1 운동을 전유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을

86) 「各道代表者의 希望條件」, 《매일신보》, 1919년 9월 29일자.
87) 『윤치호일기』, 1919년 9월 25일.
88) 『윤치호일기』, 1919년 9월 26일; 1919년 9월 27일.

추진하려던 그의 시도는 민중과의 괴리에 따른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하여 간단하게 좌절되고 말았다.

2. 자유·권리 관념의 변화와 기독교의 역할 강조

3·1 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방관자, 소극적 협력자이면서 동시에 조선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로서 이중적인 운신을 해왔던 윤치호로 하여금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조선사회로부터 냉담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YMCA의 회장으로서 기독교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하였으나 그의 사상과 행적을 이유로 많은 친구들이 떠나가는 등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입지가 축소되었다. 윤치호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했던 정책 건의안 또한 총독부의 비협조 속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그는 스스로를 "독립에 대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다지 호응받지 못하는 사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설만한 용기와 정력이 결여된 무기력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누가 나를 이 답답한 수렁에서 꺼내줄 것인지 한탄하며 심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89]

이와 같은 정신적 압박감은 다른 친일인사들도 대부분 겪는 것이었다. 이때 그들은 대개 그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조선민중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문명화된 일본에 대한 열등감과 어리석은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자신을 그 사이에서 민중을 문명으로 이끄는 선각자로 위치 짓는 것은 친일인사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 특성이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열등감과 차별로 인한 분노를 민중의 무지와 역량부족 때문으로 전가함으로써 그들은 정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90]

윤치호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병합이전부터 문명국이 된 일본에 대한 동경과 민중에 대한 불신감 및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3·1 운동을 겪으면서 더 심해져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비판과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하곤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에서 그동안 윤치호가 중요시해왔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89) 『윤치호일기』, 1921년 2월 20일.
90) 임경석, 「3·1 운동기 친일의 논리와 심리」, 『역사와 현실』 69호(2008), 65-66쪽.

인식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국 유학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한 이래로 이때까지 윤치호는 천부인권설에 입각하여 개인의 생명, 재산, 신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주장해 왔었다.[91] 그런데 3·1 운동을 경험한 이후 윤치호는 부커 워싱턴의 말을 인용하여 '자유란 물려받는 것이 아닌 쟁취하는 것'이라는 기존과는 다른 자유관을 주장하였다.[92]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윤치호의 새로운 자유관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적극적으로 저항·투쟁하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향유되어야 하며,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3]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지 못하고 전체의 행복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도 하였다.[94]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에 대한 저항권과 그와 관련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또한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그는 경남도청을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총독부의 결정에 대해 조선인들의 소망을 완전히 무시한 정당화 될 수 없는 악의적인 처사라고 평하면서도, 정작 지역주민들이 반대시위를 전개하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였다.[95] 과거 독립협회운동 당시 국가의 목적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하여 인민은 국정비판권은 물론이요 혁명권까지 가진다고 보았던 것[96]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자유관이라 할 수 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 가지는 진의는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쟁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곧 실력양성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일본의 차별대우를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윤치호는 사회진화론에

---

91) 개화기 윤치호의 자유주의 사상 수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김도형, 「근대초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발전: 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17호(1999) 참고.
92) 『윤치호일기』, 1920년 1월 27일.
93) 『윤치호일기』, 1920년 9월 8일; 1920년 9월 11일.
94) 『윤치호일기』, 1920년 2월 17일.
95) 『윤치호일기』, 1924년 12월 13일; 1924년 12월 14일.
96) 유영렬(2011), 앞의 책, 214-218쪽.

입각해서 실력이 부족한 국가와 민족의 독립이 불가능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문명국인 일본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에는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힘을 길러서 그들과 동등해진 후에야 가능하지 그전까지는 어떠한 법규나 설교도 차별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97] 자유와 권리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차별로 인한 조선인들의 불만이 3·1 운동과 같은 정치적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지적·경제적 실력양성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98]

둘째는 민중들을 계몽하는데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라진 인식에서는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인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할수록 계도하는 자의 책임과 권한 또한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치호는 조선인 부랑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가는 현상에 대해 악명 높은 부랑자 10여 명을 교도소에 가두고 중노동을 시키면 간단히 근절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당국의 의지부족을 비판하였다.[99] 곧 부랑자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라면 신체의 자유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데라우치 총독 시절에는 엄격한 기강이 세워져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는데 사이토 총독시절에는 온갖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 나타나 순박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하여 무단통치 시기의 억압과 통제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기도 하였다.[100]

또 한편으로 윤치호는 세계관의 변화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행동을 새롭게 합리화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그는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생기는 각종 부조리함과 범죄들을 역사 일반의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인류 역사는 개인들과 국가들이 서로에게 가한 불의와 상해의 기록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도들을 학살한 크롬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장로교도들은 아일랜드 원주민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나 주장했다. 1910년에 내가 앨라배마에 있을 때 감리교 원로인 젠킨스 목사가 언젠가는 흑인들을 멸종시켜야한다고

97) 『윤치호일기』, 1919년 9월 1일; 1920년 8월 22일.
98) 『윤치호일기』, 1920년 4월 17일.
99) 『윤치호일기』, 1919년 8월 7일.
100) 『윤치호일기』, 1920년 11월 9일.

말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인들이 홍에 겨워 몇 년 안에 조선민족의 자취는 시베리아 변방에서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자신들의 희망, 소원, 의도를 발설하는 것을 내 귀로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혐오스러운 점은 애국심, 자유, 충성, 종교의 이름으로 갖가지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101]

전적으로 선하거나 전적으로 악한 국가는 없다. 다만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좀더 악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제일 힘이 약한 국가가 항상 제일 선하다. 하지만 바로 그 나라도 다른 국가를 억누를 수 있을 만큼 강해지면 곧 가장 악한 국가가 된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듯이 모든 국가에도 죄가 있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102]

예컨대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본의 침략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저질러진 인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힘의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서로 바뀔 수 있는 것인 만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가간에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는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해 과거 아일랜드 의용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죽인 적이 있는 영국은 일본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3·1 운동 때 있었던 일본의 만행을 희석시키기도 하였다.[103]

이러한 인식하에 그는 침략과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 본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호전성'을 주목하였다. 호전성은 모든 종교와 도덕의 기본원리이자, 인간의 통치체제와 신의 통치체제의 기본원리로서 호전적인 민족만이 끝까지 진보하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인간 본성의 중요한 성질이었다.[104] 여기서 윤치호는 생존을 위해 호전성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류가 호전성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기독교를 통해서 그것을 길들이고 단련·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전성이 제대로 길들여지고 단련·정화되면 인간은 영웅, 성인, 주님의 사도가 되며 반대로 오용되고 왜곡하면 독일제국의 황제처럼 패망한 야만인이 된다는 것이었다.[105] 이는 제국주의 열강간에 대립의 결과였던 제1차 세계대전을 인간 본성을 오용했기 때문에

---

101) 『윤치호일기』, 1919년 7월 18일.
102) 『윤치호일기』, 1921년 5월 26일.
103) 『윤치호일기』, 1920년 1월 5일.
104) 『윤치호일기』, 1919년 1월 31일; 1920년 7월 26일.
105) 『윤치호일기』, 1919년 2월 22일; 1919년 3월 9일.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기독교에게 부여함으로써 3·1 운동 이후 잃어버렸던 자신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더하여 이것은 식민지 현실을 적극적으로 비판·타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범죄를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3·1 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시위는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와 같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목사들로 하여금 정치문제를 내버려두고 민족의 도덕적 향상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106] 기독교의 탈정치화, 탈세속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소극적인 행위를 합리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신적인 압박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윤치호는 이후 독립운동과 자치운동 양쪽 모두 거리를 둔 채 도덕적·경제적 실력양성을 위한 활동에만 주력하였다. 워싱턴 군축회의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하였지만 탈정치의 기치를 내세우며 거절하였다.[107] 그는 약소민족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체코슬로바키아의 사례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108] 3·1 운동 직후의 짧은 외도를 끝내고 그는 비정치적인 실력양성운동에만 매진하면서 국제정세가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로 다시 돌아갔다.

Ⅴ. 맺음말

윤치호에게 3·1 운동이란 회피하고 싶은 위기였다. 그가 보기에 3·1 운동은 국내외 정세도 모르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식민통치에 대한 불만만으로 조금도 승산 없는 일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불사하는

106) 『윤치호일기』, 1919년 4월 21일; 1919년 5월 10일.
107) 『윤치호일기』, 1921년 9월 27일.
108) 『윤치호일기』, 1920년 11월 14일.

지극히 비이성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그에게도 식민통치에 대한 불만은 있었다. 그는 일본이 문명국으로서 기대한 최소한의 개혁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분노했었다. 또 105인 사건 이후로 일본의 강한 압박과 통제를 받았고 개인적인 기본권의 침해와 차별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분노와 독립의지에 공감하기보다는 그와 거리를 두고 어떻게든 3·1 운동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함께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민중에 대한 그의 불신감이 너무 뿌리 깊었다. 민중과 함께할 수 없는 윤치호에게 3·1 운동은 일본의 통치를 더욱 가혹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요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그는 동참을 바라는 조선사회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3·1 운동을 반대함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3·1 운동은 전유하고 싶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식민통치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면서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3·1 운동은 리스크 없이 자신의 불만을 개진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때문에 그는 일본의 주요 요인들을 만나서 정책변화를 촉구하는가 하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총독과 정무총감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의 구상을 총독부의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의 윤치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일제시기를 통들어 일제 말기와 이때가 유일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3·1 운동이 가져다준 국면을 어떡하든 활용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구상은 자치제에 대한 요구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 대다수 민중의 바람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가 전유하고 싶은 것은 3·1 운동이 가져다준 기회이지 그 정신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시도는 일본의 무관심 속에 간단히 좌절되고 말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조선사회로부터의 냉담과 비난뿐이었다. 이에 그는 깊은 상실감과 정신적 압박을 느꼈으며, 자신의 생각을 일부 바꿈으로써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사상변화의 방향이란 기독교를 이용한 탈정치의 기치로 민중의 정치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통해 강압적으로 민중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정신적인 압박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민중과의 거리를 회복할

수는 없었다. 3·1 운동 당시 그는 독립도 민주주의도 모르는 대중들이 선동당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3·1 운동 이후 독립과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진 것은 오히려 그였다. 일본의 보통선거운동과 조선의 독립운동을 대중들의 불안감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대중들의 불안감이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총독부가 기독교의 교세 확장을 장려해주길 희망할 정도였다.[109] 3·1 운동을 통해 윤치호는 민중으로부터 기대 받던 사회적 신망도 잃고, 사상적으로도 더욱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09) 『윤치호일기』, 1920년 3월 21일.

참 고 문 헌

1. 기초자료

윤치호, 『尹致昊日記』 전11권. 국사편찬위원회, 1971-1989.

2.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11. 국사편찬위원회, 1990.

_____,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 5-7. 국사편찬위원회. 2015.

김정명 편, 『日韓外交資料集成 6: 日韓併合編 上』. 東京: 巖南堂書店, 1964.

박지향, 『윤치호의 협력일기: 어느 친일 지식인의 독백』. 이숲, 2009.

양현혜, 『개정판 윤치호와 김교신』. 한울아카데미, 2009.

유영렬, 『개화기의 윤치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윤경남 편저, 『좌옹 윤치호 평전』. 신앙과지성사, 2017.

윤경로, 『개정증보판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한성대학교출판부, 2012.

3. 논문

김도형, 「근대초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발전: 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17호, 1999, 43-88쪽.

김상태, 「일제하 윤치호의 내면세계 연구」. 『역사학보』 165호, 2000, 103-142쪽.

노상균,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역사와 현실』 97호, 2015, 335-378쪽.

류충희, 「1910년대 윤치호의 식민지 조선 인식과 자조론의 정치적 상상력」. 『동방학지』 175호, 2016, 195-224쪽.

박찬승, 「3·1 운동의 사상적 기반」.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 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397-429쪽.

임경석, 「3·1 운동기 친일의 논리와 심리」. 『역사와 현실』 69호, 2008, 47-74쪽.

장규식, 「개항기 개화지식인의 서구체험과 근대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28호, 2004, 7-37쪽.

전상숙,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50호, 2009, 7-36쪽.

조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정세」.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1989, 41-76쪽.

지수걸,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날의 교훈」.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 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11-37쪽.

최기영, 「러일전쟁 발발 직후 지식인의 정치개혁론」.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일조각, 2003, 35-55쪽.

국 문 초 록

본고에서는『윤치호일기』를 중심으로 윤치호가 바라본 3·1 운동과 그에 대한 평가 및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1 운동에 대한 평가를 놓고 윤치호는 매우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의 분노와 독립의지에 공감하기보다는 그와 거리를 두고 어떻게든 3·1 운동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조선 민중에 대한 그의 불신감이 너무 뿌리 깊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3·1 운동을 리스크 없이 자신의 불만을 개진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다. 하지만 그의 개혁구상은 자치제에 대한 요구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 대다수의 민중의 바람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가 전유하고 싶은 것은 3·1 운동이 가져다준 기회이지 그 정신은 아니었던 것이다.

3·1 운동에 대한 그의 평가와 대응은 조선사회로부터 냉담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그는 깊은 상실감과 정신적 압박을 느꼈으며, 자신의 생각을 일부 바꿈으로써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사상변화의 방향이란 기독교를 이용한 탈정치의 기치로 민중의 정치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통해 강압적으로 민중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정신적인 압박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민중과의 거리를 회복할 수는 없었다. 3·1 운동을 통해 윤치호는 민중으로부터 기대 받던 사회적 신망도 잃고, 사상적으로도 더욱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투고일 2018. 9. 27.
심사일 2018. 10. 14.
게재 확정일 2018. 11. 20.
주제어(keyword) 윤치호(Yun Chi-ho), 3·1 운동(March 1st Movement), 자유(freedom), 기본권(basic human rights), 재산권(property Rights), 기독교(Christianity), 자치제(self-governing system)

Abstracts

Between Bystander and Collaborator: Yun Chi-ho'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March 1st Movement

Noh, Sang-gune

This study discusses Yun Chi-ho's view on the March 1st Movement and his assessment and responses in his diaries. He showed a very complex attitude towards the March 1st Movement. Although he expressed compassion for the participants of the Movement, he saw it as an irrational outbreak that would only pose a risk for themselves without any chance of winning. He was disappointed by the fact that Japan, a civilized nation, made little efforts to bring on reformative measures in Korea. Despite his personal experiences of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he did not sympathize with the people's anger and will for independence, and tried not to be involved in the Movement by all means. It was because his distrust of the Korean people was too great and deep-rooted to take the risk. At the same time, however, he regarded it as a good opportunity to express his discontent and drive reform without risk. But his reform initiative, as displayed in the demand for a self-governing system, was obviously different from what the majority of people hoped for at the time. What he wanted was the opportunity that the 3.1 Movement could open up for him, not its spirit.

His assessment and response to the March 1st Movement invited criticism and uninterest from Koreans. Feeling a sense of deep loss and mental distress, he tried to overcome the dire situation by changing some of his thoughts. The direction of change was to use Christianity as a means of depoliticization, overlooking again the political demands of the people. This move was also taken to justify enforcing the enlightenment of the public relying on the idea that freedom is something to be earned. While he could overcome the mental pressure and give a new meaning to his actions, he was unable to bridge the distance with the public.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Yun Chi-ho lost the trust that they had in him and became ideologically more and more distant.